

비상경제본부 회의 겸
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(4.3.)

- 지금부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중동전쟁이 한달 넘게 지속되며 경제적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.
 - 그러나 3월 수출이 사상 처음 800억불을 넘어섰고, 다만 소비심리가 둔화되고, 하향안정세를 보이던 물가도 상방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
 - 특히, 에너지 수급에서 시작된 공급망 우려가 석유화학제품을 활용한 각종 포장재 등 일상품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
- 정부는 “거친 풍랑 속에서 키를 잡은 조타수”의 심정으로,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.
 - 전쟁영향이 큰 공급망 품목, 물가 품목은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일 점검하는 한편,
 - 관계부처 장관님들께서 참여하는 핫라인을 통해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.
 - 중동전쟁 영향과 에너지 절약에 따른 소비 제약 가능성에 대비하여 보완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.
 - 아울러 기업 활력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,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적극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.

[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]

[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]

- 오늘 회의에서는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·가격동향 및 대응방안을 점검하고, 공급망 병목해소 방안을 논의합니다.
 - 나프타는 3월 27일부터 수출통제 등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중이며, 비닐 등 필수품목 중심으로 우선 순위를 조정해서 공급을 조율하고 있습니다.
 - 나프타 파생상품과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서도 향후 수급상황에 따라 추가조치를 적극 강구하겠습니다.

- 또한, 한시적 규제 유예 등을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 등 절차적 애로를 빠르게 해소하겠습니다.
 - 수입 에너지·원료는 입항·하역 전 통관조치를 완료하고, 중동 물품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운임특례*를 적용하겠습니다.
 - * 호르무즈 우회항로 등 이용 기업의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
 - 페인트 등 수급우려 화학물질은 수입 등록절차에 특례*를 적용하여 수입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.
 - * 화학물질 등록 신청시 구비해야 하는 유해성 시험 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
 - 식품·위생용품 및 의약품의 대체 포장재 활용을 위해 포장재 표시규제를 한시 완화*하고, 패스트트랙 도입을 통해 대체 포장재 품목허가 심사기간도 단축하겠습니다.
 - * (기존) 의무 표시사항 포장재에 잉크·각인으로 표시 → (변경) 스티커 허용

[첨단전략산업 투자 제도개선 추진방안]

- 다음으로,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적극적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.
 - 지방투자에 한해 공정위의 심사·승인을 거쳐 일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규제*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.
 - * 첨단전략기금 및 그 집합투자기금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우 손자회사의 증손 의무지분을 완화(100 → 50%)
 - 신속한 공장건설을 위해, 산업단지 내 전략산업특례기업*이 공장설립 전에도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·처분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.
 - * 첨단전략기술·국가전략기술 보유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갖춘 자

[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 규제 합리화방안]

- 끝으로, 현장에서 기업의 부담을 키우는 공공기관의 '숨은 규제' 251건을 발굴하여 합리화하겠습니다.
 -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 기준*은 유사한 성질의 기체수소 충전시설과 동일하게 완화하겠습니다.
 - * 방출구 위치 제한규제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을 동일하게 완화
 - 공영홈쇼핑 입점기업에 대한 판매대금 지급은 정산 마감 10일 이후에서 2일 이후로 대폭 단축합니다.
- 공공기관 내 규제 소통창구(기업성장응답센터)를 확대*하여 숨은 규제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.
 - * 현행 144개 → 153개 기관으로 확대, 기존 기관은 본부 중심에서 지역 단위까지 확대

-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께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 규제 합리화방안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.
(중기부 모두발언)

-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